

## 사랑의 구현 양상 — 이광수의 『사랑』을 중심으로 —

이 계 열\*

### 요 약

이광수는 '사랑'을 테마로 하여 꾸준히 작품을 써왔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향한 구경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로 받아들여진다.

『사랑』에는 사랑 이야기가, 삼각관계의 구조 아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석순옥과 허영의 이야기(B)는 동물적 충동으로서의 인간의 본능에, 석순옥과 안빈의 이야기(A)는 그것의 소멸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인데, 석순옥이 결국 안빈에게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작가의 지향을 알 수 있다. B에서 A로의 지향과 A의 갈구에 대한 작가의 발상은 불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랑』을 지배하는 원리는 불교의 인과법이다. 애욕적인 사랑을 드러낸 석순옥과 허영의 이야기 축이 '인과적 비극'이라면, 성자적 사랑을 드러낸 석순옥과 안빈의 이야기 축은 '인과적 희극'이라 할 만하다. 작품의 지향점이 후자에 있으므로 이 작품은 낙관적 전망을 드러낸다.

그런데 『사랑』은 불교의 인과법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이것이 주로 안빈의 입을 빌려 직접적인 서술 방식(telling)으로 처리되어 상당히 교설적인 느낌이 든다. 작품에서, 인과법·경전 구절 등이 생경하게 그대로 인용될 뿐만 아니라 난무하여,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석순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육의 수난사가 인과법·보살도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난사는 현실논리에 부합하기에는 얼마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광수 소설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는, 죽음의 문제에 가로놓였던 춘원의 당시의 개인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불교를 신앙으로 제대로 체화(禪敎一致)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불교 진리 자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에서 비롯된 계몽적 문학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광수가 종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고통·번뇌의 원인인 욕망의 마음을 정화의 마음으로 변화시킨 그것이다. 자비로 불리는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그 마음의 자각이 참된 실존 방식이며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본 것이다.

주제어: 사랑, 본성, 본능, 이중적 욕망, 정화, 자비, 인과법

## 목차

1. 실존
2. 사랑의 방식 1 - 인간의 본능 / 불꽃
3. 사랑의 방식 2 - 인간의 본성 / 물빛
4. 실상

## 1. 실존

『사랑』은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의 최초의 전작(全作) 장편소설이다. 1938년에 상권이, 1939년에 하권이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이 작품은, 그가 종교의 전기(轉機)에 처하여<sup>1)</sup> 쓴 일련의 작품 가

1) 『유정』(1933)에 드러난 기독교적인 애정관 · 세계관이 『사랑』(1939)에 오면

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의 대부분의 장편소설들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완성된 형태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춘원은 ‘사랑’<sup>2)</sup>을 테마로 하여 꾸준히 작품을 써왔다. 김윤식이 춘원의 초기작인 『사랑인가』·『윤광호』·『방황』·『어린 벗에게』로 일관하는 주제를 ‘사랑 기갈 콤플렉스’<sup>3)</sup>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그의 창작 심리를 간파한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물론 “춘원이 최고 가치로서 <사랑>을 철저히 실천적으로 추구했다”<sup>4)</sup>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런 높은 정신적 가치를 모색한 작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극히 드물다”<sup>5)</sup>는 평가는 온당한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이 정신적 가치는, 춘원에게 있어 결국 종교적인 세계-불교적 세계로 수렴된다. 작품에서, 세상을 ‘고해’(苦海)나 ‘화택’(火宅)으로 규정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길로 제시한 세계관은 불교의 교리에 입각해 있다.<sup>6)</sup> 춘원의 말기 작품에 해당하는 『사랑』은 사랑을 테마로 한 “춘원 문학의 불교적 총수(總粹)요, 그 귀결(歸結)”<sup>7)</sup>이며 종교-불교적

불교적인 애정관·세계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무명』(『문장』, 1939. 1)·『원효대사』(『매일신보』, 1942. 3.1~10. 31)·『꿈』(면학서포, 1947. 6)이 있다.

- 2) 춘원의 작품을, ‘사랑’을 테마로 그 의미변이(意味變移)를 다룬 논문으로는 윤충의, 『춘원문학의 사랑과 인물구조』, 『연구논문』 제7집, 대한신학교, 1987. 12을 참조할 것.
- 3)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1999, 623면.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상황에서의 ‘고아의식’과 철학을 전공하고 안창호·예수·부처를 존경한 상황에서의 ‘존재의 본질을 향한 탐색’의 여정에서 ‘사랑’을 조우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듯하다. 춘원에게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허팅(hurting)-통증이면서 힐링(healing)-치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 4) 신상철, 『<사랑> 논고』,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362면.
- 5) 위의 책, 362면.
- 6) 춘원의 말기 작품인, 『무명』·『사랑』·『원효대사』·『꿈』은 모두 세상을 ‘고해’나 ‘화택’으로 규정하고, 『무명』·『사랑』에서는 『법화경』과 인연법을, 『원효대사』에서는 『화엄경』을, 『꿈』에서는 『삼국유사』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쓰였다.

인 “방법의 절정을 보여준다”<sup>8)</sup>

그렇다면 춘원이 『사랑』에서, 사랑 이야기를 쓰되 ‘왜 썼는가’와 동시에 ‘어떻게 썼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춘원은 『사랑』의 『자서(自序)』에서, “연재물이라는 데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도 없이 써 가지고 세상에 발표하는 것은 이 〈사랑〉이 처음이요, 또 내 인생관을 솔직히 고백한 것도 이 소설이 처음이며” “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하려’ ”<sup>9)</sup>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추구한 ‘높은 사랑’이란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모성애에 가까운 성자적인 사랑”<sup>10)</sup>을 의미한다. 즉 초이성적인 애정관이다. 이는 춘원이 안창호와 아들 봉근의 죽음 이후에 불교에 천착하면서 불교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이 있다.<sup>11)</sup> 바꾸어 말해 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 
- 7) 김용태, 『〈사랑〉의 사상적 연구』,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469면. 백철은, 춘원이 『사랑』에서 시도한 것은 기독교와 불교의 진리를 종합적으로 소화 섭취시키려는 엑스텐시브한 의도와 더불어 그 일치점을 찾아내려고 한 데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으며(백철, 『춘원 문학과 기독교』, 『기독교 사상』 제3월호, 1964, 42-51면) 전대웅은, 『사랑』을 통해서 놀라우리만큼 불교와 기독교가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나라 고래의 불교적인 언어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전대웅, 『춘원의 작품과 종교적 의의』,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157면) 이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불교 시 〈인파〉·〈애인〉, 〈범화경〉을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 제20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6을 참조할 것.
- 8) 춘원 소설의 비밀인 창작 방법론 속에 불교의 원리가 스며 있는 터이다. 인과 법칙이 그것이다. … 『흙』(1932)·『그 여자의 일생』·『재생』을 거쳐 『사랑』(1939)에서 그 방법의 절정을 보여준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서울, 1999, 89-91면.
- 9)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10면.
- 10)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85, 184면.
- 11) 〈사랑〉은 그가 入道하고서 얻은 最初의 靈魂의 告白일지 모른다. 나이 五十에 가까운 사람이 더구나 春園과 같이 生涯에 波瀾이 重疊하여 온 사람이 한가지 信念을 굳게 把握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 信念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된다. 김기진, 『춘원의 사랑』, 박문 제3집, 1983. 12. 최정석, 『작품 〈사랑〉의 사랑 분석-사랑의 육바라밀-』,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313면 재인용.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향한 구경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인 셈이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사랑』을 쓰게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사랑』에는 사랑 이야기가, 삼각관계의 구조 아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석순옥(石荀玉)을 중심으로 하여 안빈(安賓)과 허영(許榮)이 존재하므로, 크게 두 개의 이야기 축이 교차하는데, 하나는 석순옥과 안빈의 이야기(A)이고 다른 하나는 석순옥과 허영의 이야기(B)이다. 두 이야기는 상이한 모습을 띤다. A가 영육의 비합일-애욕의 절제·정화·소멸-남녀 간의 사랑의 승화-인류애의 실현-이타적·우주적인 인간-절대적인 사랑이라면, B는 영육의 합일-애욕의 갈등·증대-남녀 간의 사랑의 단절-이별·죽음의 도래-이기적·개인적인 인간-상대적인 사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 설정은 근본적으로, B를 동물적 충동(소유욕·집착)으로서의 인간의 본능에, A를 그것의 소멸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인간의 마음 작용 혹은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업장(業障:이전에 지은 행위로 받는 장애=煩惱心·分別心)을 인간의 본능으로, 신성(神性)-불

평자들이, 안빈과 석순옥의 사랑이 비현실적이며 안빈 같은 성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을 때, 춘원은 “安 賓이 聖者라고? 그는 自己의 입장을 지킨 常識人이냐”고 반박했다. 살기 좋은 祖國을 버리고 살기 어려운 韓國 같은 곳에 와서 生涯를 바치는 數 많은 外國神父나 宣教師들에 比하면 安 賓이나 石荀玉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521-522면. 전대웅, 앞의 논문, 160면 재인용] 이로 볼 때, 춘원은 안빈과 석순옥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대한 믿음과 이를 공고히 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춘원의 소설세계에서 이러한 점은 깊이 눈여겨 볼 만하다.

사실 〈無情〉에서 靈과 肉의 갈등은 영채와 계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충동적으로 빚어진 일시적인 환희로서 가볍게 취급되었지만, 그 후기 作品의 윤리관에 항상 극복되어야 할 테제로 작용한다. 이런 면을 東仁은 ‘죽대 없고 定見 없고 자기의 주장이 없는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주인공 선택의 잘못’으로 단정하지만 춘원은 끊임없이 이런 인물로 예술과 인생에 대처하게 하여 그 대결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성숙해 가는 道程에 있는 것이다. 춘원이 위대하다면 바로 이런 면 때문일 것이다. 신상철, 앞의 논문, 351면.

성(佛性: 본래부터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근본 성품=眞如心=如來藏)을 인간의 본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sup>12)</sup> 이것은 인간의 존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인데, 현실세계에서는 제반 조건에 따라 그 비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작품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석순옥을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에서, 주로 허영과의 관계에서 전자의 사랑이, 안빈과의 관계에서 후자의 사랑이 우세하다. 이는 허영이 탐욕에 집착하는 상징적 인물로, 안빈이 탐욕을 초월한 상징적 인물로 그려진 것과 상관이 있다.

『사랑』은 석순옥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선 A와 B, 두 국면을 첨예하게 대립시킨다. 『사랑』이, 순옥이 안빈을 만나고 그와 헤어진 뒤 허영과 함께한 후에 다시 안빈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점회귀형 구조이기도 한데, 바꿔 말하면 이것은 순옥으로 하여금 허영과의 관계(B)를 거쳐 다시 안빈과의 관계(A)로 종국을 맞게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지향점을 노출시킨다.

이처럼 B에서 A로의 지향과 A의 갈구에 대한 작가의 발상은 불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술가는 인간 본성의 암호를 읽”고 “태어나기 이전의 더 원초적인 상태, 즉 존재의 비밀을 향하여 화합의 미래상을 보이는 형태로, 보다 확고한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통

12) 엄정파 불성에 대해서는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403면; 이광수, 〈禪婆〉, 『문학과 평론』, 광영사, 1958: 우리의 생멸심 내지 분별심이 궁극적으로 아뢰야식이라면 이러한 아뢰야식은 여래장과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아뢰야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뢰야식을 여래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래장이란 아뢰야식 내에 잠재하고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다. 깨달음의 과정이란 우리의 생멸심 내지 분별심이 외부의 대상에 혹하여 그것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여래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정화해가는 과정이다./아뢰야식이란 원래 자성이 청정한 여래장에 무명이 혼입함으로써 생멸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청정한 여래장과 생멸심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을 가리킨다.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238면, 114면; 게리 주커브, 이화정 옮김, 『영혼의 의자』, 나라원, 2005, 216면 참조할 것.

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한 사회의 목표를 표현한다.”<sup>13)</sup> 이광수의 『사랑』이 여러 부정적인 평가<sup>14)</sup>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실존’<sup>15)</sup>을 향한 고투인데, 그는 일생 여러 종교를 넘나들며 이를 끊임없이 탐색해 왔다. 존재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상적인 삶의 가능성’을 향한 모색이 춘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창조하게 한 바 『사랑』에서 이는 앞의 사랑의 두 측면에서, “결국 욕망을 보편적 선의 구현을 위하여 제어하는 살아 있는 인간”<sup>16)</sup>이다. 이와 같은 실존

13) 에드워드 윌슨, 안소연 옮김, 『바이오필리아』, 사이언스북스, 2011, 101면, 102면, 118면.

14) 『사랑』이 쓰인 동기가, 교양주의의 환상에 기초하거나(신상철, 앞의 논문, 317-371면) 자기정당화(친일)의 수단인(서경석, 『춘원의 『사랑』론』, 『한국근대문학사 연구』, 태학사, 1999, 27-47면)고 보고 있다.

15)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건강하게 형성되고 창조되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이러한 특수한 존재방식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불렀다. 실존이라는 말로 하이데거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중략) 삶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전체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앞에 두고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박찬국, 앞의 책, 58-59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광수의 초기작인 『방황』에서 이미 단편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내 心臟의 뚝뚝 뛰는 소리가 … 〈그것이 왜 무엇하러 뚝뚝 뛰는가. 또는 언제까지나 뛰려는가.〉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벌써부터 하던 생각이요, 생각할 때마다 그 對答은 「나는 몰라」 하던 것이다. 『방황』, 『춘원 단편소설집』 1, 광영사, 1957, 4-5면. / 朝鮮사람은 가르치는 者와 引導하는 者를 要求한다. 果然 朝鮮사람은 불쌍하다. 나도 朝鮮사람을 爲하여 여러 번 눈물을 흘렸고 朝鮮사람을 爲하여 이 조그마한 몸을 바치리라고 決心하고 新奇하기도 여러 번하였다. 果然 至今도록 내가 努力하여 온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그는 朝鮮사람의 幸福을 爲하여서 하였다. 나는 지나간 六年間 보리밥 된장찌개로 每日 六, 七時間씩이나 朝鮮사람의 青年을 가르치노라 하였고, 틈틈이 되지도 않는 글도 지어 新聞이나 雜誌에 내기도 하였다. … 오직 행여나 이러하는 것이 불쌍한 朝鮮人에게 무슨 利益을 줄까 하는 東情으로서 하였다. 『방황』, 『춘원 단편소설집』 1, 광영사, 1957, 8면.

적 과제 상황에 도달한 것이 『사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랑』에 나타난 사랑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랑’의 테마에 주력해온 춘원 말년의 문학세계를 조명해 보려 한다. 즉 『사랑』이 종교의 전기에 처하여 쓴 작품이니만큼 춘원의 사랑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얼마간 불교적 세계관 등에 근거하여 『사랑』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있어왔지만, 그러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과연 작품 분석이 얼마나 정치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내재적 접근 방식으로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말년의 춘원의 세계관 혹은 춘원 소설 미학의 규명이기도 하면서 춘원의 문학세계의 지향점·춘원의 문학사적 위상의 재조명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사랑』 이후에 ‘사랑’을 테마로 하여 불교적 세계를 드러낸 일련의 소설들의 문학적 경향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준거점이 되기에 의미 있다 할 것이다.

## 2. 사랑의 방식 1－인간의 본능 / 불꽃

『사랑』은 석순옥을 주인공으로 한 사랑 이야기이다. 사랑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사랑의 발단과 갈등 그리고 결말을 위하여 비중 있게 다루어진 부주인공이 안빈과 허영이다. 이 중에서 순옥과 허영과의 관계에서 사랑 이야기의 한 축이 성립한다.

순옥이, 허영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하여 이성의 사랑에서 기쁨과 고통을 맛보는 삶의 형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

16) 김용옥, 『사랑하지 말자』, 통나무, 2013, 278면.



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유사하다. 석순옥과 허영의 사랑 이야기(B)는 애욕을 들추어내고 애욕으로 점철된다. 작품에서는 이를 극화시키기 위하여 허영의 성격과 석순옥의 일생을 극한적으로 물고 간 감이 있다.

작품에서 허영은 ‘훼손된 가치’<sup>17)</sup>를 대변한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순옥을 소유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그가 한 치졸한 행동은 ‘질투’에서 비롯되었다. 질투란 정서적 미성숙의 한 현상이며, 아주 심할 땐 망상과 퀘를 같이 한다.<sup>18)</sup> 허영은, 순옥·안빈의 관계를 헛소문 내기·자신의 숨겨둔 아들인 허섭과의 관계를 은폐하기·신혼집에서 이귀득과의 내통을 속이기·순옥의 경제력에 기생하기·순옥과 이의사의 관계를 의심하기·자신의 딸인 기림을 안빈의 딸로 의심하기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다. 이것은 ‘가우디움’<sup>19)</sup>을 향한 무한 욕망과 다르지 않다.

“욕심이 속에 있을 때엔 참말 번열하거든. 참말 불붙는 집이어든 화택(火宅)이란 말야”란 순옥의 말은 허영이 처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순옥의 그것이기도 하다. 허영은 “극진히 순옥을 사랑”하였다. “밤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귀찮으리만큼 순옥을 애무”하며 “잠시도 순옥의 곁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한방에 있어서도 순옥을 그냥 두지는 아니하였다.” 허영은 “난잡에 가깝도록 순옥의 몸을 희롱”하는 “성적으로 심히 절제가 없”는 인물이다. 이에 대하여 순옥은 “전혀 무저항”으로 “동물적 본능의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허영이가 자기의 몸에 대한 애무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17) 서경석, 앞의 책, 38면.

18) 김중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64면.

19) 가우디움gaudium은 현재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소유할 것이 확실시될 때, 영혼이 느끼는 즐거움이다.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사랑의 단상』, 문학과 지성사, 1994, 75면.

귀찮게 여기면서도, 그러한 중에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동안에 순옥은 일종의 행복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시집살이도 차차 손에 익어가고 집과 세간들에도 점점 정이 들고 허영에게 대하여서도 날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허영이가 신문사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고, 대문 소리가 나면 얼른 체경 앞에 몸을 한번 비추어 보고 싶게도 되었다. 허영의 귀찮을 정도의 애무에서도 역시 일종의 행복감을 가지게 되었다. 늦도록 처녀 생활을 하던 순옥의 속에 이성의 촉감에 대한 감수성은 날로 발달되어가는 것 같았다.<sup>20)</sup>

순옥은 허영의 애무에 “행복”을 느끼고 “이성의 촉감에 대한 감수성도 날로 발달되어가” 허영에게 “그리운 마음”도 품게 된다. 허영에 대하여, 순옥이 “너무 감각적인 것이 불만”이기도 하지만 분명 “탐욕의 습기(習氣)”에 갇들어 있다. 이러한 순옥의 애욕에 의한 행복(단초)이 어떠한 형태로 그려질 지에 대해 작가는 총력을 기울인 듯하다. 다시 말해 작가는 ‘불’(性愛)로서의 이성간의 사랑이 맞닥뜨리게 될 사랑의 전(全) 모습을 펼쳐 보인다. 이것은 순옥의 수난사이다. 이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순옥은, 허영이 가산 탕진 후, 의사 면허를 얻어 집안 살림을 돌본다. ② 순옥은, 허영이 숨겨놓은 아들인 허섭을 맡아 기른다. ③ 순옥은, 허영이 결혼 전에 관계하였던 이귀득과 통정하여 분개하고 그의 청에 따라 이혼을 한다. ④ 순옥은, 허영이 이귀득과 사별하고 뇌일혈로 쓰러지자 다시 허영 집안을 보살핀다. ⑤ 순옥은, 허영의 의처증(안빈과의 관계)으로 북간도로 이주하여 식구들을 돌본다. ⑥ 순옥은, 허영과 시모(媼母)인 한씨(韓氏)의 의심(안빈·의이사와의 관계, 딸인 기림의 생부)으로 고통을 겪는다. ⑦ 순옥은, 유행성 감기로 섭이·허영·한씨의 죽음을 차례로 맞이한다.

20)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456-457면.

이상의 사항들을 볼 때, 순옥이 허영을 만나 헤어지기까지는 순옥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시련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옥의 수난사는, 일단은 ‘애욕(욕정)으로서의 사랑’의 전면(全面)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기도(企圖)로 보인다. 영육의 합일로서의 결혼에서, 허영의 탐욕·애욕이 증대될수록 허영·순옥과의 갈등은 증폭되고, 종내 좌절·파멸 혹은 이별·죽음으로 파국을 맞는다. 이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 변할 수 있는 이성간의 상대적인 사랑-사랑의 단절을 표징한다. 작품의 서두에 이미 마련된 “애욕에서 오는 번민”의 낱새인 ‘아모로겐’<sup>21)</sup>의 상정은 이러한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즉 순옥의 수난사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이성간의 사랑으로서 순옥이나 허영 모두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sup>22)</sup> 보여준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닫힌 축제, 잠시 열린다 해도 감시와 금지의 축제이다”<sup>23)</sup>

다른 한편으로, 순옥의 수난사에는 ‘보살행’<sup>24)</sup>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서술전략이 깔려 있다. 순옥은 허영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헤쳐 왔는데, 이는 ‘불(火)-애욕으

21) 아모로겐이나 아모론이 사랑이라는 희랍말을 어원으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아모론은 이성에 대한 애정이 결박될 때에 혈액 중에 생기는 물질로서 (중략) 성적인 애정을 경험한 동물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아모로겐Amorogen에서는 다량의 유험과 암모니아를 본다. 이것이 그 혈액에 자극성이면서 약간 불쾌감을 주는 비린내에 가까운 냄새를 발하게 하는 원인인 듯하다 (중략) 유험질과 암모니아질이 없는 화합물을 아우라몬Auramon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중략) 암모니아나 유험으로 신경을 자극하면 광포성을 발하는데, 이것이 이성의 애정에서 가끔 보는 광포성의 원인이라고 안빈은 생각하였다. 아우라몬은 이러한 광포성을 제거한 사랑, 즉 자비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책, 69-71면.

22) 롤랑 바르트, 앞의 책, 28면.

23) 성적인 쾌락은 환유적인 것이 아니다. 일단 얻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것이다. 롤랑 바르트, 앞의 책, 299-300면.

24) 보살의 수행덕목인 육바라밀에 대입하여 『사랑』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최정석의 앞의 논문의 305-313면을 참조할 것.

로서의 이성간의 사랑의 무상(無常)함과 더불어 이를 초극코자 하는 대결의지<sup>25)</sup>인 것이다. 그 의지의 이데올로기가 보살행의 실천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허영과 관계한 순옥의 수난사는, 좌절·파멸을 넘어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지향의 결말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작가는 작품에서, 순옥·허영과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순옥·안빈과의 사랑 이야기를 중첩시켜 놓았다. 이 작품이 단순히 통속소설로 취급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 사랑의 방식 2-인간의 본성 / 물빛

『사랑』은 석순옥이 안빈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석순옥이 허영과의 결혼 생활을 끝낸 다음에, 다시 안빈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이 작품에서 그만큼 석순옥과 안빈의 사랑 이야기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석순옥과 안빈의 관계에서는 애욕적인 사랑이 절제·정화·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부정된다. 작품에는 애욕적인 사랑이 부정되어야 할 동기<sup>26)</sup>가 드러나 있다. 그것은 이들이 인간 존재의 비밀을 깨닫고 보살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자적인 사랑을 동경·지향해서이다. 물론 이들이 애욕적인 사랑에 갇들어 있어<sup>27)</sup> 성자적인 사랑

25)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기 현실을 사유하고 자각하고 해결하며 어떤 벽 앞에서든 문을 열고 나가는 힘이 진정한 지성이다. 진경린, <완벽한 사랑의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풍경』, 섬앤섬, 2012, 61면.

26) <사랑>에서는 아모론 혹은 아모로겐이 부정되어야 할 動機가 희미한 채 一方的으로 '아우라몬'을 동경한다.(신상철, 앞의 논문, 361쪽)라는 진술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사랑』을 관통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염두에 두면 주로 직접적 서술 방식을 취한 안빈의 설교 등에서 그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각주 31) 등을 참조할 것.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승화하여 결국 성자적인 사랑을 확호히 한다.

“ (...) 인생의 일생이란 끝없는 수련의 길의 한도막이니까. 하루니까. 형극의 길이든, 장미의 길이든, 성심성의로 날마다 당하는 일을 잘 치러가면 고만이니까. 원체 인생의 목적이 향락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것을 교계할 것은 아니어든. 그것은 모두 인과응보루-금생뿐 아니라, 다생, 무시 이래의 인과응보로 오는 것이니까. 치를 빚은 아무 때에나 치러야 하는 것이고-빚이란 아무쪼록 빨리 치러버리는 것이 좋은 일이구. 단지 한 가지 내가 순옥에게 부탁할 것은 무엇에나 잡히지 말라구 빠지지 말구. 행복에나 불행에나 말야. 내 몸이 아프구, 죽는 것까지라도 말야. 다 꿈이고 허깨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란 것을 잊지 말란 말야(...)”<sup>28)</sup>

“사람보다 이상 경계에 가면 벌써 남성이니 여성이니까 없는 것이오. 예수께서 보신 천당으로 말해도 벌써 남녀 성을 초월한 경계야. 쇠똥구리가 쇠똥 덩어리를 소중한 여기지 않소? 사람은 그것을 우습게 보지? 그와 같소. 사람 이상 경계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연애니 혼인이니 하는 것도 그러한 말요. 그

27) ① 비록 육체에 관련되지 아니한 순전히 정신적으로 사모하는 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안빈을 향하여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순옥은 안빈의 병원에 다시 다니게 된 뒤로 솟아오르는 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몇 번이나 고삿을 뉘웠던가. 『사랑』, 548면.

② ‘순옥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안빈은 혼자 깜짝 놀란다. 순옥이가 도저히 언제까지든지 자기 곁에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은 더욱 견딜 수 없게 간절하여진다. 안빈은 이 모양으로 순옥에게 대하여 간절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 그 아내에게 미안함을 깊이 느낄 뿐더러, 겸하여 이따가 스러질 이 육체에 관한 모든 욕심에서 떠나려는 자신의 수도 생활에 어그러짐을 느낀다. 『사랑』, 110면.

③ ‘순옥이가 이렇게 그리울까? 이렇게도 내 가슴속에 파고들어갔던가?’ 하는 것이었다. 안빈은 잠이 줄고 식욕이 줄었다. 그것은 곧 안빈의 얼굴에 나타나고 인원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사랑』, 470면.

28)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345-346면.

러기에 예수께서 어디 혼인하셨소? 그 제자들도 안 했지. 석가 세존께서는 한 번 혼인을 하셨어도 나중에는 아내로 말고 제자로 그 부인 야수다라를 대하시지 않으셨소?”<sup>29)</sup>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 인생은 “무시이래의 인과응보로 오는” “꿈이고 허깨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과법에 따른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뜻한다. 이러한 자각이 “인생의 목적이 향락이 아니”고 “끝없는 수련의 길”로 표명된다. 뒤의 인용문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석가·예수는 사람 이상 경계에 있는데 그 경계에서 보면 연애·혼인은 그리 소중한 것이 못 된다. 연애는 “변하”는 사랑이다. 석가·예수는 변전하는 인간적인 욕망-애욕적인 사랑을 여윈 성자인데, 이들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기적인·조건적인 사랑/사랑의 단절/“변하”는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이타적인·무조건적인 사랑/사랑의 영속/“영원히 안 변하는 사랑”-에 속한다.

인과법으로 이 세상에 오는 인간 존재의 비밀을 깊이 자각할 때, 끝없는 고통의 단초가 되는 애욕적인 사랑이 아닌 성자적인 사랑에 이르는 도정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겠는가. 즉 성자적 사랑에 이르려는 성도(聖徒)로서의 “수련의 길” 혹은 “수도 생활”로 말미암아 애욕적인 사랑은 부정된다. 이들의 애욕적인 사랑의 부정-금욕은 “자신들을 진리의 존재 자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형태의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sup>30)</sup>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끝없는 수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 대한 애욕적인 사랑이 제어·초월 즉 부정-절제-정화-소멸되는 것이다. 순옥과 안빈은 모두 이를 지향한다.<sup>31)</sup> 이들이 사표(師表)로 삼은 것은 부처이다.

29) 위의 책, 402면.

30)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옮김, 『성의 역사2-쾌락의 활용』, 나남, 1999, 39면.

이들은 “불보살의 명성밖에 취할 명성”이 없다고 여긴다. 순옥이 교사→간호사→의사로서, 안빈이 문인→의사로서 지난한 삶의 여정을 밟는 것은 “중생의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치는 방책으로 마련되

31) ① “제가 선생님 곁에만 있으면,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 혼자 선생님을 떠나 있으면 도루 한 계집애고요.” 『사랑』, 113면.

② 안빈은 자기가 문사 시대의 여러 작품에 성도적인 생활과 감정을 그리기를 좋아도 하고, 힘도 썼다. (중략) 제 마음의 더러움에 진저리가 나서 창작생활에서나 그 진저리나는 더러움을 벗어나보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었다. 안빈이가 성인이 되려고 결심도 하고 애도 쓰는 것은 사실이어나와, 또 그와 한가지로 도저히 금생에서는 더러운 속인을 벗지 못하리라고 자탄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 114면.

③ “우리가 깨어서 말요, 우리가 무명의 길고도 깊은 꿈을 깨어서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소?” 하고 또 한 번 말을 끊었다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가졌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늘까지 하여오던 모든 욕심의 일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따마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는 일밖에 무엇이겠소?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또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요, 기쁨의 길이니까.” 『사랑』, 707-708면.

④ 나는 사랑이 일체 유정물의 생명 현상 중에 가장 숭고한 것임을 믿는다. (중략) 육체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많겠지마는 그것은 마치 생물계에 사람보다도 벌레가 많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육체의 결합과 아울러 정신에 대한 사모를 짝하는 사랑이야말로 비로소 인간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자격을 가지겠지마는 한층 더 올라가서 육체에 대한 욕망을 전연 떼어버린 사랑이 있는 것이 인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 (중략) 사랑의 극치로 말하면, 물론 무차별, 평등의 사랑일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사랑이다. (중략)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동물적 본능을 떠난다는 말이다. 그 말은 ‘이기욕’을 일체로 떠난다는 말과도 같다. 완전히 ‘나를 위하여’라는 ‘욕심’을 떠나고 ‘오직 그를 위하여’ 사랑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자비심’의 황금색을 띤 사랑이 되는 것이다. 『사랑』, 8-9면.

성스런 삶을 지향한 인물로, 석가·예수 등 성인 이외에 마하트마 간디·유영모를 들 수 있다. 간디는 인도 힌두이즘의 보편적인 철학인 브라흐마차리야를 실천하였다. 자신의 욕욕을 제어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부부지간에도 기본적으로 섹스는 자식을 갖기 위한 행위로써만 용납) 브라흐마를 자기 몸에 온전하게 구현하는 도(道)를 발견하였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 52세 되던 해에 일일일식(一日一食)과 더불어 부부금욕을 의미하는 goghs(解婚)을 선언하고 평생 김효정 여사와 다정한 친구처럼 해로운 이야기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김용옥, 앞의 책, 297쪽, 301면.

었으며 이는 종내 ‘북한 요양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일생의 헌신은 이성적(異性的)인 사랑을 초월하여 보살도를 실천하려는 행위로서, 이는 “사랑의 일생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사랑은 자비에 가깝다. 자비는 “애증의 대립을 초월한 아무런 조건이나 때가 묻지 않은 가장 정순한 사랑”<sup>32)</sup>을 뜻한다.

춘원이, 끊임없는 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성인의 단계, 즉 예수와 부처의 단계까지 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sup>33)</sup>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순옥·안빈의 사랑 이야기에서 불교의 윤리인 자비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다. 앞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끝없는 수련의 길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존재의 목적”은 “사랑으로 완성”<sup>34)</sup>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순옥의 사랑을 일러 “모성애에 가까운 성자적인 사랑”<sup>35)</sup>이라고 할 때 그것도 자비를 함의하는 말로 수용해

32) 조현규, 『동양 윤리의 답론』, 새문사, 2008, 205면.

33)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 전집』 17, 삼중당, 1962, 188면.

34)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는 날에 비로소 우리는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 수가 있는 것이오. (중략) 만일 순옥이가 지금 모양으로 사랑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 일생에 얼마나 많은 중생의 마음속에 탐욕의 식은 재에 묻혀서 마치 아주 불이 꺼진 듯이 줄고 있는 사랑의 숲에 불을 붙여놓을는지 모르지.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니까. 인원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 일밖에 더 할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불로 중생의 사랑의 숲을 태워서 이 세계를 사랑의 세계로 화하는 것-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나 말야. 안그렇소, 인원? (중략) “그러기루 그날이 언제 옵니까?” 하는 것은 인원만의 한탄은 아닐 것이다. “내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날!” 『사랑』, 713-714면.

춘원의 초기 단편소설인 <방황>에는 존재의 목적(삶의 의미)으로 방황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여기에 춘원의 작가의식이 생경하게 드러나 있는데, 말년 작품인 『사랑』으로 미루어, 그의 작가의식이 결국 ‘사랑의 완성’(무여열반-지혜-자비)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5) 조연현, 앞의 책, 184면.

소설 전편을 염두에 둘 때, 순옥·안빈과의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플라토너 러브)이라고 하는 견해는 얼마간 적절치 않은 듯하다. 그들의 서로간의 호모가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성자의 삶을 꿈꾸는 지향점의 일치(일체감)에 있기에 이들은 영적 성장을 돕는 영적인 동반자 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야 타당할 듯하다.

작품에서, 성인의 피에서 발견되며 순옥의 피에서도 발견된다고 제시된 ‘아우라몬’(Auramon)은 “자비의 표상”이다. 이것은 “이성의 애정에서 보는 광포성을 제거한 사랑”으로서 “현숙한 어머니의 아기를 안은 가장 무심한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안빈의 입을 빌려 말해진다. 순옥이 허영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수난사)는 이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옥은 안빈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靈的) 성장을 거듭하면서 갖은 시련을 이겨냈던 것이며, 마침내 이상향인 북한 요양원에 다시금 헌신하는 것이다.

순옥과 안빈의 사랑 이야기는 처음·중간·끝 모두 ‘래티시아’<sup>36)</sup>가 지배적이다. 영적 성장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남편간에 달콤한 말로 남의 환심을 사는 ‘마리보다쥬’<sup>37)</sup>는 이 이야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性)이 아닌 성(聖)의 이끌림에 있고 여기에 인간적 가치를 둔다.

“제가 선생님의 사상인들 어떻게 안다고 하겠어요. 근 이십년을 두고 되어보아두 선생님의 생각은 한량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사상을 헤아리기를 단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생님의 한량없으신 덕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제 지혜로 알아지는 것만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왔습

36) 래티시아는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의 주된 명제로, 단순한 쾌락이 아닌 인간의 힘이 성숙된 실현이나 인격의 성장을 표현하는 행복의 쾌감을 말한다. 폴랑 바르뜨, 김희영 옮김, 『사랑의 단상』, 문학과 지성사, 1994, 75면.

37) 사랑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미적지근한 소모를 의미한다.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한 채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나 할까. 이런 억제된 교미coitus reservatus의 문학적 형태가 바로 달콤한 말로 남의 환심을 사는 마리보다쥬 marivaudage일 것이다. 마리보다쥬란 프랑스 18세기 작가 마리보Marivaux에서 유래한 말로 여자의 환심을 사려는 언동이 주를 이루는 작중인물에서 유래한다. 위의 책, 101-102면.

니다. 그것은 저를 죽여라, 하는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를 죽이고, 너와 인연있는 자를 사랑하여라. 무한히 무궁히, 무조건으로-이렇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한량이 없으신 선생님의 덕 중에서 이 한 가지를 배우는 것으로 일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어요. 제가 그 정신으로 살 수가 있을 때면 제가 사모하는 선생님의 품에 드는 것이거나,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의 머리카락 한 올을 안고 기쁘게 기쁘게 살아온 거예요.”<sup>38)</sup>

순옥이 안빈을 만나 2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한 가지 지혜로 알아지는 것”이 있고, “이 한 가지를 배우는 것으로 일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다. 그것은 ‘저를 죽이고 너와 인연 있는 자를 사랑하여라. 무한히 무궁히, 무조건으로’이다.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힌 〈자서〉에 비추어 볼 때, “저를 죽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집(我執)의 소멸로서 ‘육체를 떠난다·동물적 본능을 떠난다·이기욕을 일체로 떠난다’는 말과도 같다. “완전히 ‘나를 위하여’라는 욕심을 떠나고 ‘오직 그를 위하여’ 사랑할 때에 자비심을 띤 사랑이 되는 것이다.”<sup>39)</sup> 저를 죽이고 너를 무조건으로 사랑하기는 부처의 사랑 즉 성자적 사랑이다. 안빈과 마찬가지로 순옥은 탐욕·질투를 벗어난 초월적 사랑의 실현에 이르러 한다.

『사랑』에 드러난 이러한 사랑의 추구는 해·달의 이미지<sup>40)</sup>로 애기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거기에 무엇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난다. “뱀 배우면 뱀이 되”니 “사람이 어이하여 해와 달을 안 배우나”하며 반문한다. 왜인가. 해와 달은 만물에 차별없이 평등하게 빛을 주며 만물을 살린다. “주노라 말 있던가 갠

38)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763면.

39) 위의 책, 9면.

40) 이광수, 『마음』·『저 해를 바라보니』(미발표 시집 『내 노래』 소재), 『이광수 전집』 19, 삼중당, 1964, 280-281면.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150-151면 재인용.

아라 말 있던가” 하는 탐욕없이 무조건 준다. 해와 달 같은 사랑이 야말로 가장 높은-성숙된 사랑이다. 아울러, 물(빛)이 만물을 거역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있는 그대로 다 담아내듯이(영상) 인간도 이처럼 인연을 섭수하며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옥이, 저를 죽이고 인연 있는 자를 무조건으로 사랑하기-성자적 사랑의 구현이 『사랑』에서 지향하는 세계이다.

작품의 결말이, 순옥과 안빈의 재회로 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이들의 요원왕에의 헌신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애욕적인 사랑의 승화에 따른 사랑의 영속성-이타적·절대적 사랑-인류애의 실현을 표징한다.

#### 4. 실상

『사랑』은 석순옥·안빈·허영의 삼각관계를 통해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하려” 41)한 작품이다.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사랑’은 인간에 내재된 이중적 욕망(애욕적 사랑·성자적 사랑)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로서의 성자적 사랑인 ‘자비’를 지향하고 있다. 불교의 궁극적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자비의 완성을 향한 열망이 이 작품에는 담겨 있다. 자비는 불교의 개념이지만 춘원에게 있어서 자비는 진리의 다른 이름이다. 춘원은, 우주의 이치인 진리는 하나뿐으로(하나로 통한다) 성자(예수·석가·공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을 사랑·자비의 완성자로 본다. 42)

41)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10면.

42) ① “석가여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이니까 불교 이치라고 하겠지마는 누구나 우주와 인생을 바로 보면 이 이치에 도달하고야 말 것이니까, 불교 이치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치지-그것이 진리란 말이오. 진리아 하나뿐 아니요?” 『사랑』, 178면.

『사랑』에는 불교 교리뿐 아니라 『법화경』이 반복적으로 인용<sup>43)</sup>되고 있다. 춘원이, 『사랑』을 쓰던 당시에 법화행자였고, 그의 『법화경』과의 인연이 이미 1923년·1934년에 있었던 점<sup>44)</sup>을 감안한다면, 작품에서 『법화경』의 세계가 드러나는 일은 자연스럽다. 『법화경』에는 일불승(一佛乘) 사상이 나타나 있다. 수행의 경지가 다른 성문·연각·보살은 모두, 마침내 부처가 된다. 부처는 깨달은 자이

춘원은 진화론 사상과 과학 및 천문학이 크게 떨친 20세기 초두의 일본 철학계에서 공부를 했기에 우주론적 관심이 컸고, 그리스 이래의 세계사에 관심을 가졌기에 인류의 흥망이라든가, 우주속의 인간이란 관점에 관심을 가졌다. 김윤식, 앞의 책, 93면.

② “고마운 절을 드릴 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옴의 씨를 주시고 이것이 돌아나도록 힘써 주시는 부처님이시고-하나님이라든지 원 이름이야 무에라든지 말야.” 『사랑』, 767면.

③ 뉘이여 우리가 참으로 先生님이라고 부르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사람은 그렇게 世上에 수두룩한 것이 아닙니다. 道를 배우려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인형을 쓴 사람에는 다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禽獸草木에도 한두 가지 나보다 나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意味로 보아서는 天地萬物이 모두 스승이지마는 그분의 말씀이면 다 옳고 그 분이 行하시는 일이면 다 道에 맞아서 나는 오직 그 분만 따라가면 道를 얻으리라 할만한 그러한 스승에 이르러서는 悠悠五十年 人類의 歷史上에 두세 분밖에 아마 한 분밖에 나서지 아니하였다고 믿습니다. 實로 그러한 스승님은 우리 人類 中에 한 분이면 우리 人類를 가르쳐 濟度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뉘이여 그러한 크신 스승님이란 釋迦如來와 孔子와 耶蘇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수, 『춘원 서간문법』, 광영사, 1960. 전대웅, 앞의 논문, 172면 재인용

춘원은 공자가 말한 ‘朝聞道夕死可也’의 道나, 성경에서 말한 ‘太初에 道가 있으니 道는 곧 하나님이니라.’의 道나, 불교에서 ‘佛……欲令衆生入佛知見道 故出現於世’의 道나 같은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광수, 『문학과 평론』, 광영사, 1958, 318면. 전대웅, 앞의 논문, 171면 재인용.

43) 『사랑』에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은 271면, 「제바달다품」은 706면에 원문의 일부가 실려 있다. 한글로 된 불교 교리나 불교 경전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1930년대에, 불교를 바탕으로 소설화 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간 것은 불교 대중교화의 차원에서 일정 정도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44) 이광수는, 1923년 금강산에서 영허당 석감노사의 안내로 『법화경』을 읽었으며, 1934년 봉선사의 운허법사가 『법화경』 한 질을 몸소 저다 쥐 『법화경』을 읽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광수, 『육장기』,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1, 정한출판사, 1976, 36-37면을 참조할 것.

다. 즉 지혜·자비의 완성자이다. 생명의 본질·우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 『사랑』에서 석순옥과 안빈이 상구보리(上求菩提)·하화중생(下化衆生)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종내 성자-부처에 이르려는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석순옥의 영적 동반자로서 늘 성인을 꿈꿨던<sup>45)</sup> 안빈이 “한참 더 공부”를 하겠다는 발언은 성자의 길에 이르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전(全) 작품에 걸쳐 ‘업·열반·보살·자비’<sup>46)</sup>에 대한 직접적인

45) ① 안빈이가 성인이 되려고 결심도 하고 애도 쓰는 것은 사실이어나와, 또 그와 한가지로 도저히 금생에서는 더러운 속인을 벗지 못하리라고 자탄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 114면.

② “나는 이 죄인의 껍데기, 범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구 성인이 되려구 애만을 써왔소. 내가 그렇게 애쓰는 양을 당신의 착하구 깨끗한 마음이 보시구 나를 그 처럼 과대하게 평가하는 게요.” 『사랑』, 371면.

46) ① “적가세존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에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은 이 은원의 씨 때문이라고 하셨소. 혹 누굴 사랑하였다 하면 그것은 은이 되고, 또 누굴 미워하였다 하면 그것이 원이 되어서, 이런 것을 업(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업 때문에 우리에게 난다고 하는 것, 즉 생의 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셨소. 그래서 전생에 은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원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원수들과 한데 모이도록 태어나서 그들에게 보복을 받는단 말야. 그러니까 도무지 은과 원의 업을 짓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중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인연이 없단 말야. 이렇게 생사의 인연을 영영 끊어버리는 것은 불교 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야. 그리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될 업이 없이 이 지구뿐 아니라, 수없는 세계에 그 세계의 중생들을 건지려고 일부러 자유로 중생의 몸을 쓰고 나오는 이를 불교 말로 보살이라고 부르지. 이 보살이라는 존재를 제하고는 우리 중생들은 다 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으로 아니날 수 없어서 태어난 것이란 말야. 그래가지고는 청산해야 할 과거의 업을 청산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 위에다가 겹겹으로 새 업을 더 지어 붙인단 말야. 내 말 알아들었소?” 『사랑』, 128면.

인간의 탄생은 전생의 은원(恩怨)의 씨인 업 때문이고, 인간의 종식은 이 업의 소멸-열반에 있다. 업을 지은 자가 중생이고, 업을 소멸한 자가 보살(대승사상에서는 부처의 화현·상징-중생을 건지려고 자유자재로 중생의 몸을 쓰고 나오는 자)이다.

② “부처님께서는 무한히 참고 영원히 참으라고 하셨소. 사랑은 참는 것이니까. 그런 사랑이 점점 높은 정도에 올라가면 참는다는 것마저 없어질 것이요. 모두 자비니까, 온통 자비니까, 자비 속에 참는 것은 어디 있소? 참는다는 것이 아직 사랑이 부족한 것이지. 정말 나를 완전히 잊고 나를 잊는 줄도 잊은 줄까지도

서술방식이 재차 강조되는 것도 이와 상관이 있다. 다시 말해, 석순옥·안빈·허영을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불행에 관심을 두는 플롯이라고 볼 때, 이를 지배하는 원리는 한 마디로 말해 불교의 인과법이다.

“응, 인과 인과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지 오늘날 과학에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인과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와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는 제일 근본 되는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란 말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생하게 한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인과라는 게야. 현대 사람들은 자연계에는 인과율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에는 인과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많아. 그렇지만 그것이야 물론 그릇된 생각이야. 사람과 자연계와 다를 것이 아니어든. 모두 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인과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모든 번뇌가 생기는 게야. 우리가 만일 생각으로나 말로나 또는 몸으로나 무슨 일을 하나 했거든 말야.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뒤집어서 말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당하거든, 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싫은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당하게 한 원인을 우리의 과거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야. 일언이폐지하면 제가 심은 것은 제가 거둔다는 말인데, 이 인과율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인생관의 근거가 되는 거야.”<sup>47)</sup>

인과법은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는 제일 근본 되는 법칙”으로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생하게 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애증이 교차하는 애욕의

완전히 잊고 보살행을 하는 마당에야 참는다는 생각이 날 까닭이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참는 경계를 넘어서셨지.” 『사랑』, 615-616면.

47)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123-124면.

갈등이 '원인'이 되어 질투·불안·이별·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B), 애욕의 절제·정화·소멸이 '원인'이 되어 평온·충만·영적 성장·영속성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A). 범박하게 말해 『사랑』에서, 애욕적인 사랑을 드러낸 석순옥과 허영의 이야기 축이 '인과적 비극'이라면, 성자적 사랑을 드러낸 석순옥과 안빈의 이야기 축은 '인과적 희극'이라 할 만하다. 작품의 지향점이 후자에 있으므로 이 작품은 낙관적 전망을 드러낸다.

물론 A·B 두 이야기에서 주인공 석순옥은 허영·안빈 모두에게 대체로 '환대(歡待)로서의 주체성'<sup>48)</sup>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인과법에 대한 믿음<sup>49)</sup>에서 비롯된 윤리적 자세인 것이다. 인과법은 인간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이타행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으로 자리한다. 바꿔 말해 업을 행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삶의 무한한 가능성(善因善果 惡因惡果)이 펼쳐진다. 업의 완전 소멸이 부처-성자인 바 성자는 인간 진화(향상)의 최고 단계-궁극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이야기 구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48)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주체성에 대해 말한다. 여기서 타자는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자로, 거주하며 노동하는 나에게 윤리적 요구로서 임하는 무한자로, 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지배할 수 없는, 즉 나로 환원할 수 없는 절대적 외재성으로 묘사된다. 타자의 출현과 더불어, 내가 타자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 즉 '환대(歡待)로서의 주체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50-151면.

49) ① 안빈은 웃으며, “어때, 순옥이도 인과 믿소?” “네, 믿습니다.”(『사랑』, 124면) 이후 장면은, 안빈의 삼세인과(三世因果) 설교에 순옥이 깊이 감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나는 이 모든 향상과 진화가 오직 우리가 짓는 업으로 되는 것을 믿는다. 고마우신 하느님은 이 우주가 인과율에 의하여 다시려지도록 지어 주셨다. 우리네 별레와 같은 중생이 하는 조그만 『일』(업)도 하나도 스러짐이 없이 내 예금 계좌에 기입이 되는 것이다. 이 저축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일의 나, 내생의 나, 천 겁만 겁 후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하느님의 크신 은혜다. 『사랑』, 8면.

하지만 『사랑』은 불교의 인과법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이것이 주로 안빈의 입을 빌려 직접적인 서술방식(telling)으로 처리되어 상당히 교설적인 느낌이 든다. 작품에서, 인과법·경전 구절 등이 생경하게 그대로 인용될 뿐만 아니라 난무하여,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순옥의 수난사가 인과법·보살도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난사는 현실논리에 부합하기에는 얼마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광수 소설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는, 죽음의 문제에 가로놓였던 춘원의 당시의 개인사(동우회 사건으로 투옥, 스승 안창호·아들 봉근의 죽음, 이에 따른 신병의 악화로 서사를 소설화하기에는 심리적 거리 유지의 어려움)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불교를 신앙으로 제대로 체화(禪教一致)하지 못한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불교 진리 자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에서 비롯된 계몽적 문학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춘원은 평생 '사랑'의 테마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가 '사랑'을 지속적으로 소설화한 점은 그만큼 사랑에 대한 탐색의 도정에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춘원의 말기 대표작인 『사랑』은 종교적으로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도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춘원이 체득한 '사랑'은, 고통·번뇌의 원인인 욕망의 마음을 정화의 마음으로 변화시킨 그것이다. 자비로 불리는 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그 마음의 자각이 참된 실존 방식-실상-이며 인간 구원의 길-자유-이라고 본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갈망에 있어서, 춘원의 초기작인 『방황』·『어린 벗에게』 등은 욕망의 마음-동물적 충동으로서의 인간의 본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말기작인 『사랑』·『무명』·『원효대사』·『꿈』은 정화의 마음-애욕의 소멸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간 혹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탐색에서, 춘원이 인간에 내재된 이중성(性/聖)을 대면하였다면, 1930년대 이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 내재된 이중성(속고/속이고, 죽이고/살리고)<sup>50)</sup>을 대면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생의 구경(究竟) 추구’에서, 춘원이 살아 있는 부처를 지향·창조한 것(『사랑』)과 1930년대 김동리가 살아 있는 부처를 창조한 것(『등신불』)<sup>51)</sup>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춘원의 문학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사랑·인간 탐색에 대한 작가들의 의식의 지평·한계를 비교하면서 재속고·재평가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50) 줄져, 『한국현대소설의 자아의식 연구』, 국학자료원, 2001, 36-80면 참조할 것.

51) 줄고, 『깨끗한 몸-등신불』, 『인문학보』 제34집, 강릉대 인문학연구소, 2008, 65-84면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이광수, 『무명』, 『문장』, 1939. 1.  
 이광수, 『춘원 단편소설집』 1, 광영사, 1957.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 전집』 17, 삼중당, 1962.  
 이광수, 『원효대사』, 삼중당, 1962.  
 이광수, 『육장기』,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1, 정한출판사, 1976.  
 이광수, 『사랑』, 문학과 지성사, 2008.

2. 논문 및 단행본

- 김용옥, 『사랑하지 말자』, 통나무, 2013.  
 김용태, 「<사랑>의 사상적 연구」,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444-470면.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2, 솔, 1999.  
 김중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백철, 「춘원 문학과 기독교」, 『기독교 사상』 제3월호, 1964, 42-51면.  
 서경석, 「춘원의 『사랑』론」, 『한국근대문학사 연구』, 태학사, 1999, 27-47면.  
 신상철, 「<사랑> 논고」,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317-371면.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이윤기·김훈·박범신 외, 『사랑풍경』, 섬앤섬, 2012.  
 전대웅, 「춘원의 작품과 종교적 의의」,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137-173면.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불교 시 <인과> · <애인>, <법화경>을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 제20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6, 425-462면.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85.  
 조현규, 『동양 윤리의 담론』, 새문사, 2008.

졸고, 『깨끗한 몸-등신불』, 『인문학보』 제34집, 강릉대 인문학연구소, 2008, 65-84면.

졸저, 『한국현대소설의 자아의식 연구』, 국학자료원, 2001.

최정석, 『작품 <사랑>의 사랑 분석-사랑의 육바라밀-』, 『이광수 연구』(下), 태학사, 1984, 299-314면.

윤충의, 『춘원문학의 사랑과 인물구조』, 『연구논문』 제7집, 대한신학교, 1987, 12, 91-109면.

게리 주커브, 이화정 옮김, 『영혼의 의자』, 나라원, 2005.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사랑의 단상』, 문학과 지성사, 1994.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옮김, 『성의 역사2-쾌락의 활용』, 나남, 1999.

에드워드 윌슨, 안소연 옮김, 『바이오펠리아』, 사이언스북스, 2011.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Abstract>

## The embodiment of love in Lee Gwang-su's Novel

Lee, Gye-Yeol

Lee Gwang-soo has continued to write his works with a theme of 'Love'. For him, 'love' is regarded as a moral aspect of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ethics of living.

Love Story appears in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structure of love triangles. The story of Suk Soon-Ok and Huh Young(B) is based on human instincts, and the story of Suk Soon-Ok and Anne Bean(A) is focused on human nature. This is a double figure that coexists in the presence of humans. The author's idea of direction from B to A is based on the Buddhist view of the world.

However, in an aesthetically pleasing perspective, it seems somewhat far-fetched to acknowledge artistic values, and it seems somewhat inappropriate to meet realistic logic from realism.

This is related to Lee Gwang-soo, who was involved in the death of the deceased, but also related to Buddhism, which is not related to the faith of Buddhism. Of course, it will be closely related to the Enlightenment, which originated from the desire of the author to implement the Buddhist Truth itself.

What the writer eventually wants to say is that the heart of the human being is to change the heart of the human desires into the heart



of purification. ‘Love’, which is ultimately said to be the ultimate goal of Lee Gwang-soo, is mercy. It is inherent in human nature and sees its consciousness as a real existential way of life and human salvation

Key words: love, nature, instinct, double desire, purification, mercy, law of causality

투 고 일 : 2017년 7월 19일    심 사 일 : 2017년 7월 20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